

〈제 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 전국 1등급을 받은 유일한 특수교사〉

2022년 12월 22일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보도 자료에는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디지털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파도가 되어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소양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발달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인 저에게 이것은 큰 고민이자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디지털교육연구대회는 피할 수 없다면 정면 돌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한 대회였습니다. 특수교사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이기는 하나 주변에 이 연구대회를 나간 동료 특수교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획서를 내면서도 과연 보고서를 제출이나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보고서 출품이라는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사로서 수업을 제일 앞에 두는 사람이 되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저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정체성이지만 나이 마흔이 넘은 저의 어깨에는 교사라는 역할 외에도, 아내, 두 아이의 엄마, 겸임교수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쁜 일들 때문에 수업 준비가 부실하거나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수업을 내 삶의 가장 앞에 두기 위해선 좀 더 큰 각오가 필요했고, 그것이 저에게는 연구대회 도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국대회 1등급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으나 처음부터 모든 일이 원활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흔 줄에 들어선 위کم맘 교사라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장벽은 학교에 제대로 된 디바이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수업은 네트워크와 1인 1 디바이스라는 환경이 튼튼히 구성되지 않으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업을 포기할까 생각하던 중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교육용 노트북을 개발한 네이버웨일에 기기 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이 기적처럼 성사되어 저는 학생들과 디지털 수업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수업을 한다는 것은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쉬운 비판이 아닌 ‘적어도 나는 뭐라도 할 거니까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려운 낙관을 선택함을 의미합니다. 저와 우리 반 아이들이 해 온 수업은 실패와 시행착오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제 연구대회 폴더 속에는 4월 16일부터 광주 지역예선대회 보고서 출품 하루 전인 8월 25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작성한 보고서의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저녁에는 시간을 낼 수 없어 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 보고서를 쓰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1등급 심사 대상자가 되었으니 발표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 9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 발표 심사는 이를 뒤인 9월 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은 밤 9시까지 광주여대 강의가 있는 날이라 준비할 시간은 월요일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스크립트를 짜고 연습했습니다. 발표 심사 전 날은 광주여대 수업이 끝나고 빈 강의실에 혼자 남아 휴대폰으로 발표 영상을 녹화하며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표 심사일 저는 “우리가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노력해서 미닫이문을 열라고 하지 않고 건물에 자동문을 설치하듯 디지털 교육도 모두를 위한 디자인 철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장 마지막에 남은 학습자까지 품는 에듀테크가 가장 성공한 에듀테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한 접근성의 한계는 정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QR코드를 통한 접속도 우리 반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저의 이야기가 공감을 샀는지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주 예선에서 1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 지역 유일한 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예선 1등급은 도착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국대회 출품 전 보고서를 가다듬고 컨설팅을 받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였습니다. 9월 27일 전국대회 출품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국대회 발표심사 대상자라는 문자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아 문자를 소리 내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잠을 줄여가며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 연구는 저만의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제 수업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신 동료 선생님들과 제 수업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반 학생들, 꼼꼼한 컨설팅으로 제 보고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분들까지, 소중한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연구이자 보고서였습니다. 어느새 저는 제 연구의 가치를 믿어준 광주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잘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으니까요.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떨리는 발표심사를 마쳤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좀 더 많은 연구와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증거기반 연구가 쌓일수록 더 많은 지원과 더 깊은 배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심사위원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저는 제 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받은 유일한 특수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 년 전만 해도 저는 디지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컴맹 아줌마 선생님이었습니다. 다른 학교급이 1인 1 디바이스 보급을 이미 마친 올해 초 저는 노트북을 한 대도 받지 못한 전공과의 답임으로 부임해 학생들과 휴대폰으로 겨우 수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저조차도 제가 전국대회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1등급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불안과 자기 불확신의 시기를 관통하며 실패와 실수까지도 고유의 삶의 무늬로 만들고자 했던 수업의 과정에 있습니다.

쉬워서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롭기에 도전한 것입니다.

확신으로 밀고 나간 결과가 아닙니다. 매 순간 흔들렸으나 한 걸음만 더 나가자는 마음으로 해낸 일입니다.

빛나는 광주여대의 초등특수교육과의 재학생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다가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